

성명서(2매)

일시: 2023.09.13.(수)

담당: 010-4660-1409(사무국장)

경주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해 주십시오.

경주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성공원 내에 높이 56미터(약22층)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14일) 경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의회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안 보류를 촉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류하는 일은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을 보류하면 국가관을 의심받는 등 이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담을 떨치고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만 한다. 도시 한복판, 그것도 유서 깊은 황성공원에 높이 50미터의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도시 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황성공원 주변은 주민 밀집 지역인 만큼 주민의 심리적 거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황성공원에 들어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시의원들의 국가관을 의심할 경주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졸속으로 황성공원에 들어서면 국가 상징물이 시민들의 조롱거리와 민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경주시는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21일 황

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관련 부서 협의를 마무리되면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주민 설명회에서 발표된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에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없었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주민설명회 이후 급조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 한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 계획(안)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관련 예산안을 의결해야만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한다. 황성공원에 높이 50미터의 국가 상징물을 건설하는 문제는 밀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2023. 9.13.

경주환경운동연합